



NEW SPIRIT

Mindanao, Philippines

Inho & Yeonji Park
 1111 Copper Street
 San Rafael Village
 8000 Davao City, Philippines
 ih.park@gmail.com
 agnes.yjpark@gmail.com

I will give you a new heart and put a new spirit in you; I will remove from you your heart of stone and give you a heart of flesh (Ezekiel 36:26)

2019년 5월

선교편지 제 120호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과 사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여 주시는 교회와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가 교회와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디고스 예일 교회를 섬기는 중에 경험하는 큰 기쁨 중에 하나는 현지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 찬양하는 현지 교인들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들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하는 상상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가능한 까닭 중에 하나는, 디고스예일교회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찬양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8시에 교회에 모여서 뜨거운 기도로 찬양팀의 연습이



시작되는데, 거의 오후 6시 또는 7시까지 계속됩니다. 찬양 인도자, 키보드, 드럼, 세명의 기타 연주자로 구성된 찬양팀은 하나님께서 디고스 예일 교회에 허락하신 귀한 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헌신된 찬양팀 구성원에는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찬양팀에 속한 누구도 '악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찬양을 연습하면서 도, 레, 미,... 등과 같은 이야기는 전혀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좋은 찬양을 반복해서 귀로 듣고, 연습하는 중에 원곡과 동일하게 연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 현지인들의 정서가 반영된 더욱 더 귀한 찬양과 연주로 새롭게 탄생 한다는 것입니다. 스피커에서 흘러 나오는 원곡을 각 연주자 별로 주의 깊게 듣고 흥얼거리며 반복한 이후에 마침내 함께 연주하는데,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환경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디고스예일교회의 찬양팀에 필요한 가장 큰 덕목은 음악적인 배경과 실력이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게 연습에 임하는가'이기 때문에 다른 모든 부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현재 디고스 예일 교회에는 기존의 찬양팀 뿐만 아니라, 제2 찬양팀, Youth 찬양팀, 그리고 여전도회 찬양팀이 시간을 달리하며 성실하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있다면, 디고스에일교회는 미처 별다른 방음 시설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한 벽돌로 건축된 건물이어서 소리의 반사와 간섭이 매우 심하다는 것입니다. 마치 큰 대중 목욕탕 안에서 찬양을 부르는 것과 같은 효과로 인하여 좋은 찬양에 비하여 늘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음향 전문가들을 수소문했지만, 예상한대로 이 지역에 그러한 전문 실력을 갖춘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디고스 지역에도 가정집에 개인 음악 스튜디오를 차려 놓고 가수 지망생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어렵게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소위 스튜디오라는 곳을 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열악한 시설로 인하여 더 이상 다른 질문을 할 수 없을 정도 였습니다. 그 스튜디오는 달걀 30개를 담은 종이로 만든 밀받침을 온 벽에 붙여 방음 시설이라 부르고 녹음을 하는 구조 였습니다. 도저히 시도해 볼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교회 환경 보다는 나을 것을 기대하고 찬양팀의 녹음을 처음으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7분 정도의 한 곡을 파트별로 녹음 하여 편집 하는데 거의 3시간 걸려 마침내 한 곡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찬양팀의 연주와 찬양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정말 아름다운 곡이 탄생 하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소리를 처음 듣는 양, 찬양 인도자는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감격을 하고, 악기 연주자들은 서로 손을 잡으며 기뻐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 누구 보다도 놀란 사람은 바로 저입니다.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과는 차원이 다른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팀의 기도와 연습과 수고가 온전히 드러나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귀한 찬양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 디고스에일교회는 찬양 사역의 큰 담력을 얻고, 지역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확인하여 주신 찬양 사역을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교회로 주민을 초대하여 찬양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인근 대학과 고등학교로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YouTube에 자체 채널도 개설하여 기도해 주시는 후원자들과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새롭게 시작하는 디고스에일교회의 찬양 사역을 통하여 이 선교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구원의 기쁜 소식이 충만 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며 잠잠하지 마옵소서 (시 109:1)



지난 3월초부터 이름이 '다이아몬드'인 아버지와 세 자녀로 구성된 새가족이 디고스예일교회로 출석하고 있는데, 이들이 교회로 오게된 동기는 사뭇 독특합니다. 다름 아니라, 교회 앞을 자주 지나 다니는 중에, 매 주일 아침 마다 교회 앞에서 교인들을 맞이하는 저의 모습을 보고 디고스예일교회로 출석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고 등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얼굴을 마주한 적도 없고, 전도의 말을 건넨 적도 없는데, 저의 모습만을 보고 교회로 출석하게 되었다고 하니, 저도 이제 선교사로서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하는 잠시 착각에 사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아몬드' 교우의 배경을 좀 더 깊이 알고 보니, 저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디고스예일교회로 보내 주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우는 목포에 있는 선박 회사에 7년간 해외 취업을 나가 있었던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필리핀에 있을 때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어서 집으로 송금을 했었고, 목포에 있는 해외 노동자들을 위한 교회에도 매주 출석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필리핀에 있는 아내가 자식을 버려 두고, 모아 둔 모든 돈을 들고 다른 남자와 가출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 한국 생활을 모두 정리하고 고향인 필리핀에 돌아 와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모든 돈을 송금해 왔었기 때문에 수중에 별다른 목돈이 없어서, 이곳 남자들이 가장 손 쉽게 할 수 있는 오토바이 운전으로 밤, 낮없이 일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삶이 곤고한지 쉬는 날이면 술에 취해 있었고, 일을 할 때면 몸이 상하는 지도 모를 정도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밤에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그 일 마저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때에서야 한국에서 다녔던 교회 생각이 나고, 비로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는데, 그동안 지나 다니며 무심코 보아 왔던 한국인 선교사가 생각이 나서 디고스예일교회로 출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어깨 뼈가 부러진 까닭에 아직까지 압박 붕대를 하고 있고, 별다른 생업을 가질 수 없어서 동네 텃밭을 가꾸면서 야채를 키워 가게를 꾸려가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마다 심방을 가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 보다도 큰 변화는 교회에 출석하는 세 자녀의 모습이 달라 졌다고 하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로부터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전처럼 말이 많아 지고, 교회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좋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인하여 어깨 뼈가 부러진 까닭에 아직까지 압박 붕대를 하고 있고, 별다른 생업을 가질 수 없어서 동네 텃밭을 가꾸면서 야채를 키워 가게를 꾸려가는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매주 마다 심방을 가서 함께 기도하고 있고,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작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 보다도 큰 변화는 교회에 출석하는 세 자녀의 모습이 달라 졌다고 하며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엄마에게 버림을 받고, 아버지로부터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이 교회에서 친구를 사귀기 시작하고, 얼굴도 밝아지고, 그전처럼 말이 많아 지고, 교회에 가는 것을 기다리고 좋아 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아프고, 힘들어도 자식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소망이 있다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참으로 감사하게도 한국에서 신앙을 선물로 받아 왔다고 고백하는 말을 들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곤고한 중에 만나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 합니다. 가족 모두가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의 자녀로 귀히 쓰임 받기를 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 43:1b)



필리핀의 4,5월은 모든 공립학교가 일제히 방학으로 돌입하는 가장 무더운 시기입니다. 더위로 인하여 유동 인구도 한산해 질 정도이지만, 교회는 이와 반대로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고 개설하는 바쁜 때이기도 합니다. '바카카 교회'도 4월초부터 어린이 여름 성경 학교를 준비하여 7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풍성하게 모든 일정을 잘 마치었습니다. 평소 30여명의 어린이들을 제 아내를 포함하여 3명의 교사가 정신없이 쫓아 다닐 정도로 분주한데, 좁은 교회 면적에 70여명의 아이들이 한꺼번에 모이니 보통 혼잡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가는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어린이들을 통하여 이 곳 이슬람 지역이 온전히 복음화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젓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젓 똨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사 11:8)



선교 사역에 기도와 재정 후원으로 동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Direct Bank Transfer: <https://www.zellepay.com> / ih.park@gmail.com
- Bank Account: Chase Bank / 110071151665 / Inho Park
- Check Mailing Address: Inho Park / 47 Davis Avenue #2L / White Plains, NY 10605

